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 장애인주일

특별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보는 것
4월 18일 금요일집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
4월 20일 주일 찬양예배시에는 사랑부, 에바다부의 특별순서

4월 20일은 전국 교회가 '장애인주일'로 지키는 주일이다. '장애인주일'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일반인으로부터 소외당하고 특별 취급당해 온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서로 교류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바르게 인식하는 기회로 삼고자 1989년 법교단적으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다음 주일을 장애인주일로 정하고 지키게 되었다. 특별히 금년은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일이 일치하여 더욱 뜻깊은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장애인주일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장애인주일이 있는지도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100-400만의 장애인이 있는데 교통사고 및 각종 사고, 산업재해, 공해, 성인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가족)이 전체 인구의 약 25%에 달하는 것이다. 장애인 중 취학연령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중 75%가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조기교육을 받는 장애유아는 1-2%정도다. 또한 재활의료기관(200여개)이나 복



▲ 지난 해 장애인주일의 모습

지시설(이용시설 10여개, 수용시설 120여개)도 크게 부족하며, 주민들의 그릇된 장애인관과 편의시설로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정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도 미비하여 이러한 장애인 복지 실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때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오래 전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충현장애아동조기교육원을 설립하고 교육해 오다가 이를 충현복지관으로 바꾸면서 전문 장애인을 돕는 기관으로 발전시켰다. 충현복지관에서는 정신지체장애아동들과 자폐아동들, 성인정신지체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복지관 내에는 장애아의 교육을 위한 장애아동조기교실과 직업훈련실을 두고 있어 작업 재활 훈련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학교 에바다부, 정신지체장애아를 위한 교회학교 사랑부를 두어 소정의 교회학교 교육을 시키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매주일 3부예배를 비롯한 각종 집회에도 모든 순서와 내용을 수화통역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로 나선 많은 교사들이 교통수단, 식사 협력, 교육 보조를 하고 있다. 장애인 한 명당 한 명의 자원봉사 교사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친자식처럼 돌보고 있으며, 비록 육신의 장애로 어려움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건장한 그들의 순수한 마음에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고개를 숙일 때가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떠들썩한 행사 위주로 장애인의 날만 기념하고 있는 오늘의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장애인주일'이 제정된 의미를 잘 살피고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늘지고 연약한 자에게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들을 위하여 기

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며 '함께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한편 오는 금요일(18일) 저녁에는 사랑부와 에바다부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금요일집회가 있고, 다음주(20일) 저녁 찬양예배시에는 사랑부와 에바다부의 특별찬양순서가 있다.

청년교구 집회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8-10시

청년교구(교구장 서동석 장로)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8-10시 충현복지관 지하 2층 마르다홀에서 청년교구 소속 전원 및 새신자들의 집회를 갖는다.

이는 청년교구에 해당되는 젊은이들과 그동안 청년교구를 통하여 다시 교회 생활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일 기회가 없음으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청년교구의 일꾼들(교구장, 지역장, 협력지역장, 구역장)도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7-8시 교육관 209호(예신부실)에서 일꾼 모임을 갖고 교구 현황을 살피며 교구 활동을 위한 모임을 갖기로 했다.

기도원 설립 19주년

기념 부흥사경회

충현기도원은 기도원 설립 19주년을 맞으며 기념부흥사경회를 5월 26일(월) 밤-30일(금) 새벽까지 기도원에서 열기로 했다. 강사는 대구 북일교회 담임목사인 윤희주 목사이다.

장년2부 특강

북한 교회의 현황과 전망

장년2부에서는 식량난으로 날로 부패해지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혹독한 핍박속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눈물겨운 감동의 북한교회의 실상을 알고,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모색코자 특강을 마련한다.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일시: 1997. 4. 20(주일) 12:30 - 13:30

장소: 교육관 314호

강사: 김성태 교수(충신 신학대학원)



군목 파송예배

지난 주일 저녁 찬양예배는 군목 파송 예배로 드려졌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합동) 총회 주관으로 드려진 이 예배는 본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설교와 함께 군전도회 중창단의 특송과 총회 소속 목사들의 격려사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게 된 군목의 수는 총 15명으로 전체 10개 교단에서 파송되는 35명의 군목들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군목들은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친 후에 각 군에 장교로 배치 받게 된다. 특별히 총회 서성수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군목들이 고된 훈련 생활을 잘 이겨내고 60만 대군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전폭적인 기도의 후원을 부탁했다. 군목들의 성실한 사역과 성도들의 관심어린 후원으로 군을 통한 민족의 복음화를 기대해 본다. (글 / 정병수 기자, 사진 / 이운구 기자)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의 기쁨

(시편 46:4-11)

세상은 악마가 꼭 차고 질병이 꼭 차고 실패하기 쉽고 원수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피난처가 꼭 한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품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을 주시고 성공의 축복을 안기워 주십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빠지는 것처럼 큰 나라가 하루 아침에 변하든지 바닷물이 흉용하듯이 민란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품안에만 있으면 환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품안에 있는 자의 기쁨의 근거(46:4-7)

(1) 은혜의 단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두 가지 어려움이 자체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먹을 식량이 없는 것과 물의 공급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인데도 불구하고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산 속에 물이 터져서 굴로 물이 팔팔 흘러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넉넉히 공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말씀을 모든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한 시내는 하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나뉘어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곳에서 전하는데 그 말씀은 열 사람 백 사람 천 사람의 가슴 속에 나뉘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좌에서 떨어져서 천 사람, 만 사람, 백만 사람, 모든 사람에게 모자람이 없이 골고루 나뉘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면 생명이 살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므로 기쁨이 넘칩니다.

(2) 새벽에 받는 도우심입니다

앗수르는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이 백성 몇 만 평만을 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양식은 떨어질 것이고 싸울 군인이 없으니 "예루살렘은 우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앗수르 군대들이 이미 지어 놓은 밥을 시간이 되면 먹여치우는 것처럼 "저것은 내 밥이다" 생각했는데 눈에 안보이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장관들에게 원수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협박을 해도 떨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병어리처럼 꾸며 거리처럼 하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믿

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말은바 일만 충실하라고 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이 처치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이 요동치 않을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든든하고 장관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들이 믿은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벽에 도와 주신다"는 말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도와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열심히 도와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다가 돌보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도와 달라고 종일 빌어도 며칠 있다가 조금 도와줄지 어떨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므로 우리는 새벽부터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과 백성을 도와 예루살렘을 포위한 18만 5천 명의 앗수르 군대를 처치해 주셨습니다.

(3) 뇌성 같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방이 진화하며 왕국이 동한다"는 것은 앗수르 나라 사람들이 떠들어 대며 출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몽땅 삼키려고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앗수르 군대는 가는 곳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는 애굽까지 정복하려고 합니다. 세계를 먹으려고 준비하는 앗수르입니다. 이렇게 강한 원수들이 떠들어 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가 없으신데 소리 없는 음성으로 18만 5천 명을 처치해 버리셨습니다.

태양은 소리 없이 빛을 비춥니다. 그러나 태양빛에 만 가지 생명이 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로 천지를 명령하고 다스리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로 천지만물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밀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에 땅이 녹아 버립니다. 땅이 녹았다는 말은 앗수르 나라가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4)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한 사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야곱을 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입니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강하다고 뽐내는 교만쟁이가 아니고 자기가 약한 줄 알고 겸손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을 주시고 성공의 축복을 안기워 주십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빠지는 것처럼 큰 나라가 하루 아침에 변하든지 바닷물이 흉용하듯이 민란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품안에만 있으면 환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십니다. 둘째,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자복하고 굶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뭘데 하면서 체면 때문에 죄를 숨기고 핑계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십니다. 셋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년이 넘는 고생을 했고 요세도 하나님의 축복의 꿈을 두 번이나 꾸고도 13년의 고생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도 25년이나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덤비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우리는 마음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2. 하나님의 보호받은 자가 할 일(46:8-11)

(1)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재산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와 그의 하신 일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무자가 됐다고 돈 자랑 하지 말고 박사가 됐다고 지식 자랑 하지 말고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권세 자랑 하지 말고 겸손하여 조심하면서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권면하여 믿음을 키워 주고 안 믿는 자에게는 전도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2)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는 열었던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안 믿는 사람이 그 앞에서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바로 왕이 모세 앞에서 열 번 싸워 열 번 진 다음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 믿지는 않지만 입을 딱 벌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은 건너가고 따라가던 애굽의 군인들이 죽었을 때 살아남은 애굽의 장관들이 "아" 하고 입을 벌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원수들이 우리를 보고도 입을 벌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신자는 사람에게 의논하며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부탁합니다. 참 신자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지나친 근심을 하지 않고 쉽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타락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상사도 하지 못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의 신하처럼 함부로 입을 열어 원수와 타협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시민들처럼 원수의 협박에 떨거나 원수의 유혹에 끌리지 말며 오직 자기 할 일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인간이 상상 못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며, 이것을 믿고 책임에 충성하는 것이 신자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 장애인주일을 앞두고 ○



“조금만”

이준우

(강도사, 사랑부·에바다부 지도, 교육연구소·출판국 부지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그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사람들을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부단히 일치되는 노력을 할 때 바른 선교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히 수많은 장애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시며 말씀과 이적을 통하여 잃어버린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사회에서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는 이러한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병들어 그늘진 곳에 억눌린 사

람들을 불러 복음의 정신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정통으로 계승하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여전히 장애인을 단순히 동정하고 단순히 구제해야 한다는 정도의 인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특수선교'라는 영역에 포함시켜 놓고 특수하게 해야 될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특수하게 떠 맡겨 미뤄 놓는 일로 여기는 느낌도 듭니다. 장애인들을 구제 또는 자선의 대상으로 여길 뿐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장애 이웃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위하여'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 책임진다는 무리한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장애 이웃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불편함을 '조금만' 함께 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장애인이 '스스로 한

다'는 만족감도 가질 수 있고 더욱 힘 있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가까이 사랑을 나누는 자세로 '조금만'이지만 뜨겁게 잡아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조금만' 사랑을 실천하기란 충현교회에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인해 충현교회에는 장애인을 섬길 수 있는 현장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에바다부, 정신지체인을 위한 사랑부, 그리고 충현복지관이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교제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수화도 좀 배우고, 사랑부에 와 보기도 하고 필요한 봉사가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크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조금만이라도 장애인을 도우며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보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장애인과 접하다 보면 그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또 오히려 그들로부터 좋은 것을 배울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은 결코 우리보다 열등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재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복음의 정신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몸으로 봉사해야 하면 봉사로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랑부와 에바다부의 장애인들이 각 교구에서도 믿음 안에서 활발하게 일반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활동하게 해 달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에게 맞는 직장 및 직종이 우리 교인들 중의 뜻있는 사업가들을 통하여 개발되게 해달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부와 에바다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애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과 건강한 비장애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일꾼을 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장애인이 전혀 장애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진정한 사회통합과 평등이 가득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마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사랑부와 에바다부뿐만 아니라 각 교구와 여러 모임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일들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부를 통해 알게 된 기쁨

송근호

(사랑부, 뇌성마비 장애인)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장애인을 보는 눈이 날카롭고 따갑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장애인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지나치곤 합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나 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상인들이 우리 장애인들에게 더 관심을 두시고 바라보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정상인들에게 장애인 증상이 몇 가지나 있나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소아마비, 교통사고로 다친 장애인, 이렇게 몇 가지 정도로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듣기로는 장애 증상이 수십 가지며 치료 불가능도 있습니다. 제가 충현교회의 사랑부에 들어오기 시작한 후로부터 알게 된 장애는 먼저 제가 앓고 있는 뇌성마비로부터, 자폐증, 정신지체, 다운증후군 등 여러 가지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장애를 소개하면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그 영양분이 살로 가지 않고 그냥 소화만 되는 '근육디스트로피'가 있습니다. 이 병은 살과 뼈에 영양분이 안가서 결국 나중엔 몸이 말라서 죽는 병입니다.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을 사랑부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사귀고 계십니다. 이밖에도 사랑부에는 없지만 수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랑부로

전도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랑부에서는 그런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습이나 저체 놀이 등을 통하여 자립심을 길러 줍니다. 나도 여기에 들어와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애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들에게 "사랑부를 아세요?" 하고 물으면 "모르는데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정상인과 비정상인 사이에 담이 너무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담을 우리 모두가 허물어서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상인들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없지만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고요.

며칠 전 난 신문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인터뷰 기사였는데, "장애인들이 거리로 활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는 물음에 "장애인이 뭐하러 돌아다니냐?"라고 대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사랑부에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선생님들과 강도사님이 계셔서 우리 사랑부에 다니

는 학생들이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부에 문을 두드린 것이 이제 햇수로 5년이 됩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학생이 얼마 있지 않았는데 어느새 학생과 교사가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보다 학생이 더 많아서 선생님들의 손이 모자라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손길처럼 다정스럽게 돌봐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에 들어와서 많은 지식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계속 여기 사랑부에 남아서 아직 못 배운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겠고, "사랑부" 이름같이 우리 사랑부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랑부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의 작은 소망은 우리 사랑부를 널리 알려서

세상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서로 무관심 속에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무관심이란 벽을 허물고 서로 손잡고 살아 갈 수는 없는지요. 사실 그래서 나 자신조차도 무관심 속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싫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부에 들어온 후부터는 사람을 사귀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을 사귀는 게 무섭고, 사람을 경계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게서 그런 마음을 없애 주셔서 지금은 마음 놓고 사람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전 앞으로 사랑부에 계속 다녀서 그런 용기를 다른 학생들 마음 속에도 심어 줄 것입니다.

지금도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주간충현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간충현에서는 보다 더 감동적이고 친근한 산문으로서 한 걸음 더 모든 독자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생생하고 주옥같은 원고를 모집합니다. 혼자 가슴 속에 묻어두기에는 아까운 선 체험과 소중한 이야기들을 주재하지 때시고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원고종류 /

간증, 수필, 세(동세), 제언, 일기, 서간문, 서평, 이런 일은 고집세다, 각 부서 소식, 만평, 소설(동화), 콩트, 가타

2. 원고마감 /

매감이 없습니다. 다만 시사성이 있는 원고나 뉴스 종류는 게재될 전 주 일 찬양예배 전까지이며, 특별한 경우는 수요일 오전까지 보내 주십시오.

토막소식

▶ 유아부에서는 4월 27일 새친구 초청잔치를 실시한다.

▶ 중등3부에서는 4월 20일 12시 30분부터 교육관 601호에서 학부모초청 기도회를 실시한다. 가치관의 혼돈, 사춘기, 정서적 불안정 등으로 갈등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 부모, 교사가 함께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 일시 귀국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훈련을 받아온 고은빈 평신도선교사가 모든 훈련을 마치고 4월 18일 사역지인 케냐로 출국한다.

금주의 교구 영성훈련

4월 17일(목) / 6교구
4월 18일(금) / 13교구

베드로연합회 특별기도회

· 일시: 4월 17일(목) 오후 8시
· 장소: 교육관 107호
· 강사: 장경철 목사, 김재철 목사

제8회 요한전도회 체육대회

· 일시: 4월 26일(토) 오후 2시
· 장소: 본당 앞마당
· 참석: 요한전도회원, 믿지 않는 30대



봄철 교회당 주변 대청소

봄철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봉사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5일까지 교회당 주변 청소를 실시하였다. 이에 각 교구는 형편에 따라 정한 날짜에 이미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교구 식구들이 힘을 합하여 청소를 해나갔다.

이런 봉사 활동을 통해 교회 주변을 직접 청소하고 깨끗이 함으로써 물소 교회 사람을 실천할 수 있었으며 교회 주변의 도로변, 골목, 주차장의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이런 봉사 활동을 자주 실시해 나간다면 지역 사회 봉사뿐만 아니라 전도 차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진 / 이승철 장로)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터키 김원호 선교사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필 복음의 꽃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1987년 1월 19일은 한국에서 터키 선교를 위한 파송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 때는 선교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구령(敎靈)에 대한 열심만 갖고 출발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믿음의 부족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믿는 것은 선교 사역에 부르신 이가 선교사를 선교 사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선교사를 위해 계속 지원과 기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후원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보고하고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1. 감사한 일들

지난 1월 7일 흑해 북쪽 몰다비아에 있는 가가우즈 터키인들이 교회를 방문

하여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25만명의 터키인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약 5천명이 있다고 합니다.

1월 19일 어린이 찬송가 테이프 2집이 나왔습니다. 터키 어린이들과 에스더, 사라, 데보라가 함께 부른 복음송가 테이프가 나오는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던지 나오는 날 밤 늦도록 듣더군요. 참으로 대견스럽고 딸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선교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세 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월 7일 제이틴부르스교회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가지마할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두 젊은 부부가 주님을 영접하여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모하메드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알레비 모슬렘들이 10만명 가량 집중적으로 살고 있으며 작년에 알레비 모슬렘의 반정부 운동으로 경찰에 의해서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던 곳입니다. 아직도 그 상처가 가시지 않는 경찰의 지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로 주님을 영접한 무스타파의 가

◆ 전방에서 온 편지 ◆

아낌없이 받은 사랑

오 용 진

(군중, 8군단 전차대대 충일교회)

사 랑하는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따스한 봄날이 다가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말을 이용해 놀러 다니기에 급급할 때이지만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 8군단 전차대대 충일교회에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일교회에서는 그동안 악기(드럼, 키보드)를 마련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군중과 신우회가 모여 기도를 하던 중 지난 3월 3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저와 반주자가 서울까지 출장을 가서 악기를 구입해 오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입한 물건은 키보드, 앰프, 드럼인데 이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은 충현교회 군전도회에서 작년 한해 동안 지원해 주신 지원금과 어느 성도님의 후원으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악기는 싼 가격에 만족스런 제품을 잘 구입할 수 있었고 운반과 설치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손길들을 통해서 도우셨기에 쉽게 잘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악기 덕분에 많은 병사들이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고, 저를 비롯해서 교회 일꾼

들도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악기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여 하나님께 더욱 힘있게, 즐겁게 찬양드리길 소원하며, 또한 진실된 찬양을 드리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충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들어 많이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은 내 힘과 지혜를 믿지 말고 오직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나의 노력이 앞설 때엔 나의 마음에 평안이 없으며 실패만 거듭하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무지와 무능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맡길 때에 기쁨이 찾아오고 응답을 받으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군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군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하시는 일 모두 행통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접촉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경찰의 간섭과 주민들의 핍박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현지 성도들의 믿음이 핍박을 이길 만큼 자라지 않아서 핍박이 강하게 오면 흩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우리들을 인식하고 다가와 복음을 듣기 원할 때까지 기다리며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집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1월 19일 주일 오후 3시 개척 첫예배를 가졌 교회로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무스타파, 글라이 부부, 육셀 형제,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터키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포교 활동을 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께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주위에서는 "앞으로 어린이들의 믿음이 자라면 반드시 부모들로부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심령에 심겨진 복음의 말씀과 전달된 주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2. 특별 기도제목

1) 금년내에 가지마할레 지역에 성도 수 20명 목표를 위해

2) 수요성경공부 및 주일예배에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쿠르드족이므로 경찰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 생애에 한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지난 2월 2일 수나, 아이텐 두 자매가 주님을 영접)

4) 새로 주님을 영접한 무스타파 가정의 믿음의 성숙과 어린이들을 위해(글

사, 알리, 무랏, 데이즈, 제이란, 마슴)

3. 기도 요청

1) 기도가 필요한 터키인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① 저를 도와 수고하는 육셀 청년과 줄름 대학생들을 위하여

② 세밀 형제의 불가리아 터키촌 사역과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③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메헤멧과 깨말 형제를 위해

④ 제이한 형제와 그의 어머니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⑤ 변호사가 되어 일하고 있는 아하멧 형제를 위해

2) 사역을 위한 기도

① 에디클레 지역 부녀자 화요성경공부 모임과 수요성경공부, 금요저녁기도 모임을 통해 이곳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② 제이틴부르스교회 주일 말씀 사역과 가지마할레 말씀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교 동역자님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 원 호 선교사 올림

추신 : 이스탄불내 미전도 종족인 알레비 쿠르트의 입양을 원하시는 교회가 있으면 자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